

# 해외출장복명서

기 간: 2014. 12. 9~2014. 12. 16

출장지: 오스트리아, 체코

출장자: 유재윤, 김태영, 김영빈

## I. 출장개요

1. 출 장 지: 오스트리아 빈, 체코 프라하

2. 출장기간: 2014. 12. 9(화)~12. 16(화)

3. 출 장 자

소속	직급	성명	비고
국토연구원	선임연구위원	유재윤	
국토연구원	연구원	김태영	
국토연구원	연구원	김영빈	

4. 출장목적

- 우리 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09년 이래 꾸준히 도시재생에 대한 글로벌 사례 조사 및 자료 수집을 수행하고, 이를 유관분야 공공기관, 연구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활동 등에 기여를 하고 있음
- 최근 우리 센터의 사례조사는 법·제도 작성 등의 기반을 우선 확보하여야 했기 때문에, 법·제도 부문의 선진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, 일본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
- ‘도시재생특별법(2013.12)’ 제정 및 ‘선도지역 지정(2014.4)’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활성화계획 작성을 위해 사업아이디어 발굴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나, 제정이 여유롭지 않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도시에서 문화자산 활용과 이전적지를 활용한 사업에 대해 참고사례가 그리 많지 않음
- 이에, 그간 지역적으로 비교적 소외되어 왔으며, 문화자산 활용과 이전적지에 적절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동부유럽쪽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자 함
  - 오스트리아 빈은 1870년 건축된 대규모 가스저장소와 공장을 재활용하여 아파트, 소품물, 공연장,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는 등 도시공동체의 회복을 통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한 적절한 사례임
  - 체코 프라하는 일부 인프라 정비를 포함하여 기존의 건축 및 문화(음악, 미술 등)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, 계획단계부터 민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도시 전반을 재생하려는 정책을 수년전부터 꾸준히 펼쳐 오고 있음

## II. 출장일정

일시	출발지	도착지	방문 기관	업무수행내용	접촉 예정인물
12.09(화)	인천	빈	(출국)	인천 출발(13:15) → 빈 도착(16:50)	-
12.10(수)	빈	Gasometer Community	(11:00) Gasometer Community 방문 - 이전적지 사례지로 Wiener Gasometer 방문 - 재생과정, 가스메터 단지내 환경, 친환경 재생 기술 등 재생전반에 대한 인터뷰 및 답사	Mag. Andreas Pöschek	
12.11(목)	빈	빈 공대	(11:00) 빈 공대 방문 - 빈市 의 건축자산 활용 노력 청취 (14:00) 문화·역사도시 재생 사례 답사 - 문화와 역사 재생 사례지로 캐린트르, 박물관 지구(Museum Quartier) 등 비엔나 구도심 지역 답사	Dr.Yoo Han Woong	
12.12(금)	빈	프라하	(이동)	빈 출발(16:31) → 프라하 도착(21:21)	
12.13(토)	프라하	프라하시청	(11:00) 프라하 도시건축계획 자문위원회 (MESTSKE ZASAHY PRAHA) 방문 - 주민 전문가 참여 및 협업과정 (14:00) 프라하 구도심 보전 사례 답사 - 구시가 (프라하)(Staré Město) - 노베 메스토(Nové Město) - 비셰흐라트(Vyšehrad), 카를린(Karlín) 등	프라하시 토지이용국 문화유산 보전과 Mgr. Jiří Skalický	
12.14(일)	프라하	-	(11:00) 활용 역사문화자산 조사 - 프라하 신도시지역 - 구시가 평장내 오흐르모이 요세포프 (유대인 지구) - 프라하 수변공간 답사	-	
12.15(월)	프라하	인천	(귀국)	프라하 출발(18:30)	
12.16(화)	인천	(도착)		인천 도착(12:45)	

## III. 수행사항

### 1. 오스트리아 빈 가스메타 시티 (Gasometer City) 활용 사례 답사

- 일시 및 장소: 2014. 12. 10(화)~11(수) 가스메타 커뮤니티
- 참석자: Mag. Andreas Pöschek(커뮤니티 코디네이터), Dr.Yoo Han Woong(빈공대)
- 주요 활동내용
  - 오스트리아 빈의 이전적지를 활용한 커뮤니티 재생 사례 조사
    - (주거단지 및 복합서비스시설로 변모) 기능이 퇴화된 가스저장소를 빈市가 유력 도시건축가, 도시계획전문가들과 심사숙고 하면서 경제후원기금 PCA은행이 투자, 30~40대가 가장 선호하는 주거공간을 갖춘 복합기능 도시로 재생
    - (가스메타 커뮤니티 방문·면담) 재생한 시설의 내발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만 상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구성, 이를 해당 지역의 새로운 의미와 활용방향을 고민하고 지역을 긍정적 발전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매개체 및 기초 추진체로 삼아 활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면담 조사

### 2. 체코 프라하 문화·역사지구 활용사례 답사

- 일시 및 장소: 2014. 12. 13(토)~14(일) 프라하 구도심·신도시지역
- 주요 활동내용
  - 체코 프라하의 민간중심 도시문화자산 보존·활용 사례 조사
    - (구도심 지역자산 활용) 절대적 보전 중심의 민간참여형 도시계획을 통해 구도심이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, 지역의 경제적 중추지역으로 삶을 이어나가는 공간으로 유지되는 현장을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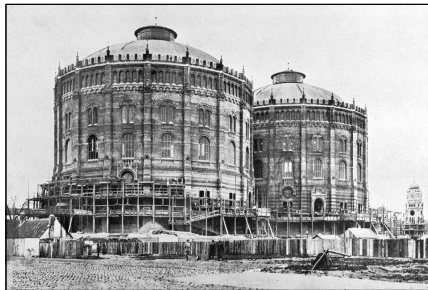
## 1. 오스트리아 빈 가소메타 시티 (Gasometer City) 방문

□ 일시 및 장소: 2014. 12. 10(수), 빈 11구 짐머링(Zimmering) 지역

□ 참석자: Andreas Poschek (Gasometer Community)

□ 주요내용

-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빈의 가스를 공급하던 가스저장소(근대산업유산)를 복합문화 주거단지로 재생한 사례를 방문
- (가소메타 역사) 가소메타는 1899년부터 1986년까지 빈 전역에 가스를 공급하던 4동의 거대한 도시 기반시설로 운영되었고, 그 후 규모와 건축물의 아름다움으로 빈의 랜드마크로 자리함
  - 빈 시는 19세기말 가스저장소라는 산업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현상 설계를 실시
  - 동일한 크기의 원통형 4개로 구성된 폭 70미터, 높이 80미터의 가스저장소 건립
  - 산업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고전적인 외관을 디자인함
  - 1981년에 빈 시는 가스저장소를 보호건축물로 지정하여 역사적인 산업유산을 현대에 적합한 시설로 재생하기 위한 환경적 발판을 마련함



▲ 1898년 가소메타 건설 당시



▲ 1910년 가소메타 전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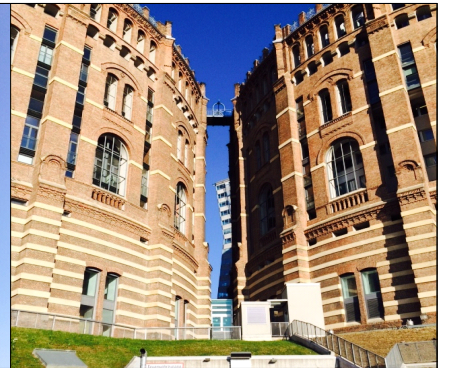
- (가소메타 위치) 가소메타는 대중교통과 자동차 모두 접근이 매우 용이함
  - 자동차로 빈 도심에서 15분, 빈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, 지하철 U3 가소메타역에서 바로 접근 가능
- (부족한 문화시설) 빈 11구 지역은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한 대형 문화시설이 부족함
  - 빈의 11구 지역은 7만5천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, 극장이나 공연장 시설이 거의 전무함
  - 또한 빈 외곽지역에 주거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소메타 시티 프로젝트는

빈 외곽지역에 주거 및 문화시설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기적절한 계획이었음

- (지역개발의 촉매제) 가소메타 시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11구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개발동력으로 작용함
  - 향후 도심 외곽지역인 11구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자와 방문자가 필요함
  - 가소메타 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히 가스저장소를 공동주택으로 재생한 것을 넘어서 11구 지역 전체에 개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담당함
  - 그런 의미에서 시 정부의 가소메타 시티 건립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11구 지역을 방문하는 부동산 투자자와 방문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작용함
- (높은 수준의 공동주택 보급) 전통적인 노동자 구역으로 도심 외곽에 자리한 11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호텔 같은 상업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공동주택이 필요함
  - 질 높은 공동주택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각종 문화 및 편의시설을 함께 갖추어 도심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서비스를 제공
  - 그 당시 대부분의 유럽 산업유산이 박물관과 같은 문화예술시설로 탈바꿈되던 분위기 속에서 가스저장소를 주거단지로 만드는 계획은 창조적인 발상으로 기록되고 있음



▲ 가소메타 시티 외관



▲ 가소메타 시티 연결부

- (4명의 건축가 참여) 같은 크기를 가진 4동의 가스저장소는 장 누벨(Jean Nouvel), 쿠프 히멜블라우(Coop Himmelblau), 만프레트 베도른(Manfred Wehdorn), 빌헬름 홀츠바우어(Wilhelm

Holzbauer) 등 세계적인 4명의 건축가 팀에게 디자인을 의뢰함

- 가소메타 A는 장 누벨이 설계하였고 12층 높이, 9개의 주거타워를 기존 가스저장소 안쪽으로 세우고, 저층에는 상업시설을 배치하여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



▲ 가소메타A의 저층 상가부

▲ 주거 공간의 중정

- 가소메타 B는 쿠프 하멜블라우가 설계하였고 4개동 중 유일하게 기숙사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였음. 기존 가스저장소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이미지를 추구함



▲ 가소메타B의 기숙사 건물

▲ 옛 건물과 신축 건물 연결부

- 가소메타 C는 만트레트 베도른이 설계하였고, 나머지 3개동과 다르게 최대한 기존 가소메타의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거공간을 디자인함. 특징으로 주거 공간마다 테라스를 통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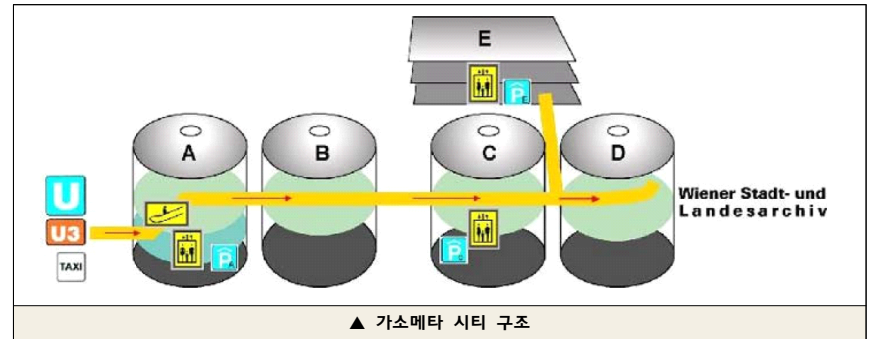
작은 정원을 조성하여 공동주택에서 보기 어려운 울창한 녹지를 이루고 있음



▲ 가소메타C의 주거 공간 테라스

▲ 가소메타의 열려 있는 지붕

- 가소메타 D는 빌헬름 홀츠바우어가 설계하였고, 지하에 주차장과 빈 도시 자료관이 위치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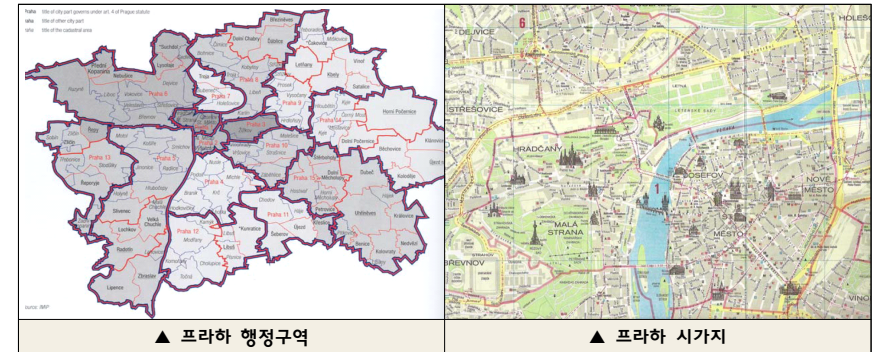


▲ 가소메타 시티 구조

- o (사회적 의지를 담은 계획) 산업유산의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공동주택의 유형을 창조한 빈 시의 의지와 노력이 담긴 재생사례
  - 가소메타 시티는 전체 615세대와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76개의 기숙사로 구성
  - 지난 10년간 가소메타 시티에 거주한 주민들 대부분은 30~40대 젊은 층으로 구성
  - 용도 폐기된 산업유산을 재활용하여 만든 공공주택이 도심 외곽에 거주하는 젊은 층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음
  - 현재는 빈 시내 뿐 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가소메타를 찾는 방문객 수가 점점 증가하고

있음

- 빈 시도 다른 유럽의 수도처럼 도심부와 외곽지역의 거주환경수준 격차가 심함. 빈 11구 지역도 시민들이 기피하는 에너지저장시설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음
- 11구 지역은 빈 시에 포함된 지역이지만 전형적인 산업 지역으로 문화예술과는 거리가 먼 삭막한 분위기의 지역이었음. 하지만 빈 시가 용도 폐기된 거대한 가스저장소를 수준 높은 주거와 제반 서비스 시설을 통해 재생시킨 것은 11구 지역 전체를 활성화하는데 초석이 됨



## 2. 체코 프라하 문화·역사지구 활용 사례 답사

□ 일시 및 장소: 2014. 12. 13(토)~14(일) 프라하 구도심·신도시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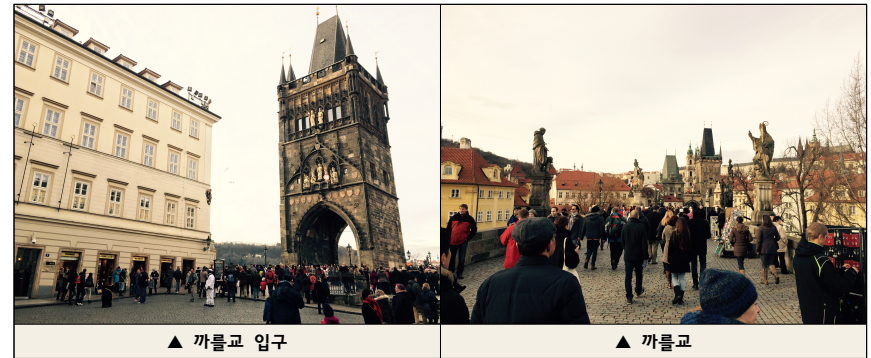
□ 주요내용

- 15~16세기에 건축과 문화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로 독립한 이래 수도로 자리 잡은 프라하의 도시변화와 역사자원 활용 사례를 조사
- **(개요)** 면적은 496km<sup>2</sup>, 인구는 126만 2천명(2014)이고, 영어·프랑스어로는 프라그(Prague), 독일어로는 프라크(Prag)라고 함. 체코 중서부, 블타바강(몰다우강) 연변, 라베강(엘베강)과의 합류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, 체코 최대의 경제·정치·문화의 중심도시임. 시내를 흐르는 블타바강은 너비가 100~300m이며 몇 개의 지류로 구성되어 있음. 시는 15개의 구(區)로 나누어져 있으며 교외지역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음. 시에는 대통령관저·정부·의회 등의 정부기관 등을 비롯해 과학아카데미·프라하대학(1348)·음악대학·도서관·스트라호프 민족자료관(옛 수도원) 등이 집중 분포함
- **(체코의 독립)** 1989년에는 소련이 붕괴하며 독립국가연합이 만들어지고 체코슬로바키아에도 변화가 생겨 1993년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각각 새로운 독립국가로 재출발함. 체코는 크게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두 지역으로 나뉘는데, 보헤미아지역의 중심지는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이이고 모라비아지역의 중심지는 브루노임
- **(프라하의 공업)** 프라하에는 100여 개의 기업이 있고 전국 공업생산의 10% 가량을 생산함. 주요한 것은 기계공업으로, 국영기업의 CKD(전기, 기관차 등)와 테슬라(모터방송관계) 등이며 인쇄공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

- **(도시 변천과정)** 1850년대의 프라하 도시는 블타바강의 중심에 거주 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집단 형태를 이루고 있었음. 그 후 도시 시설 및 상업, 금융 등의 기능이 진입함에 따라 1995년에 복잡한 도시 밀집 형태로 변모함
- **(역사문화지구)** 프라하가 역사와 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관광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는 1971년에 블타바강 일원을 역사보호지구로 지정하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면서부터임. 프라하성, 찰스다리 등 13개의 국가 지정 문화재, 1400여개의 문화재, 105개의 궁전, 35개의 수도원, 58개의 교회, 1만 여개의 예술작품 등 풍부한 문화유산 및 유적이 보호되고 있음. 프라하의 역사보호지구는 800ha에 이르고 있고 약 65,000명 주민이 거주하며 보호지구지정으로 약 200,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됨. UNESCO는 1992년에 프라하의 역사보호지구를 세계유적으로 등록함
- **(교통인프라)** 프라하의 교통인프라는 유적지 및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외곽을 중심으로 3개의 지하철, 환승역, 대중교통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지하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 또한 인프라의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



- (주요 지역자산) 강을 끼고 있는 다른 여러 도시들처럼 프라하에도 많은 교량들이 있지만 프라하의 까를교와 같은 훌륭한 중세시대의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유럽도시는 그리 많지 않음. 처음엔 '프라하교', 혹은 그냥 '돌다리' 라고 불리다가 1870년 이후엔 '까를교'라고 재 명명된 이 석조 교량은 옛 로마네스크 양식의 '유디스다리(Judith Bridge)' (1170년경 세워졌으며 1342년의 대홍수로 인해 파손되었음)의 잔해가 있던 자리 옆에 1357년 7월 9일 까를 4세의 명령으로 만들어졌음. 고딕스타일의 교량은 그 후 1496년, 1784년, 1890년에 일어났던 대 홍수를 거뜬히 견디어 낼 수 있을 만큼 견고했음. 페터 파를러(Peter Parler)라는 독일인 건축가에 의해 축조되기 시작한 이 교량은 15세기 초에 그 공사가 마무리됨



- (주요 지역자산) 블타바 강 오른쪽 자구인 '구시가광장'에 있는 구시청사는 전형적인 고딕양식의 건물로, 건물 벽에 붙어 있는 천문시계가 유명함. 현재는 건물이 2차 세계대전 때 파손되고 천문시계가 있는 70m의 탑만 남아있는데, 매 시간마다 정확히 올라서 천문시계는 천동설에 기초한 두개의 원이 나란히 돌아가는 구조로 작동됨. 또 이곳 안에는 프라하 시민들이 결혼식장으로 이용하는 작은 예배당과 탑 내부에 후스파 사람들이 수용된 적이 있는 감옥이 존재함
- 매 시간마다 정확하게 시간을 알리는 구시가광장의 시계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몰리는데, 두 개의 원반 위에 있는 천사의 조각상 양 옆으로 창문이 열리고, 죽음의 신이 올라서 종소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창 안쪽으로 천천히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시계의 위쪽에 있는 닭이 울고 끝남. 이 시계의 제작자에 대해서는 시계 제작의 거장이었던 미클라슈가 만들었다는 것과 15세기경 프라하의 천문학자이자 수학교수였던 하누슈가 만들었다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함

